

‘소비자 편익’ 미끼...이마트 피자·롯데마트 치킨

“영세 자영업 생계수단까지 값아먹나”

초저가 5000원 통닭 1시간만에 300마리 동나

“말로만 동반성장...뒤에선 골목상권 죽이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치킨, 피자 등 ‘생계형 서민 업종’까지 과고되면서 ‘골목상권 잠식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치킨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준비했던 물량(200~300마리)이 모두 팔렸으며, 광주·전남 롯데마트 7개 점포에서도 예약물량이 거의 없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 판매에서 나선 것은 논란 속에서도 ‘이마트 피자’가 큰 인기를 끌자 서민 대다수가 간편하게 즐기는 치킨을 대항마로 내세운 것이다.

네가게’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까지 취급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참들의 패기로 “얹!”

9일 오후 광주은행 신입직원들이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베네치아 컨벤션 홀에서 열린 ‘광주은행 신입직원(Rookie) 페스티벌’에서 태권무를 선보이고 있다.

소보원 “식품 유통기한표시제 개선 필요”

소비자 편익을 위해 현행 식품 유통기한표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크림빵과 케이크는 변질 속도가 빨라 크림빵은 유통기한 경과 후 2~8일 사이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카드 수수료 선진국보다 높다”

체크·직불 유럽의 10배...수수료 체계 모순투성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수수료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카드 사용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국내 카드사들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각 업종별 연체율이나 카드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코스피 연고점 돌파...2000 눈앞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선물·옵션 등 시 만기일(카드리플워징데이) 등 이벤트 데이인 9일 코스피지수는 1,980.54로 전일보다 1.99% 상승했다.

이후 3년 여만에 최고치며, 시가총액은 1105조493억원으로 지난달 10일에 기록한 1091조7천140억원을 뛰어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신세계 ‘한국 유통대상’ 대통령 표창



2010년 한국 최고 유통기업으로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이장환·사진)이 선정됐다.

한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5년간 활발한 지역 친화 경영과 고품격 서비스로 지역 최고의 백화점으로 성장해왔다.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친절도 평가, 스마일 라인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롯데백 ‘연 매출 10조 시대’

롯데백화점(대표 이철우)이 국내 백화점 최초로 ‘연(年) 매출 10조원 시대’를 연다.

선보이며 유통시장을 더욱 다양화했다. 또 내수 산업이라는 백화점 이미지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한국의 상품과 문화를 외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전도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매출 10조원 달성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임직원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더 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SST 서울시스템기술(주) featuring a large tree graphic and text boxes for CTS, 서체개발, and DTP services. The headline reads 'SST 서울시스템기술(주)는 최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